

분과발표_철학 2

전기 비트겐슈타인을 통한 기독교 철학의 모색

신상형 (안동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20세기의 철학은 그 추세가 달라졌다. 그는 많은 철학적 난제들이 언어사용의 혼돈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의 전후기 사상은 그 기조가 사뭇 다르다. 여기에서 다루는 전기 사상의 핵심은 『논리철학논고』에 나타나 있는데, 언어란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언어는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종교적 담론은 『논리철학논고』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침묵을 권고 받는 언어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요점은 종교적 담론이 수없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혼동하여 많은 불필요한 논쟁들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있다. V장에 언급된 성서의 사태들은 바로 이런 언표와 침묵의 혼동된 사태를 분석하기 위한 용례들로, 이 전기 사상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들이다.

이 사례들은 성경의 사태들 뿐 아니라, 신앙의 맥락에서 수 없이 발견될 수 있는 전형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사태를 종류별로 나열하면 훨씬 다른 차원의 종교담화의 오류들을 캐내는 부수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관점은 성경 안팎의 오해로 가득한 종교적 담론들을 말해 종교적 담론을 제대로 수행케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비트겐슈타인, 종교/기독교적 담론, 『논리철학논고』, 그림, 언어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성경의 맥락을 분석하여 언어사용의 잘, 잘못의 유형을 밝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독교 담화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성경은 많은 비유와 은유 그리고 상징을 사용한 담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록된 말놀이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들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장치와 도구들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일부 담화를 채택하여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분석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빌어 성경의 권위나 정당성을 판정 혹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이는 착오를 그의 전기사상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성경언어의 의미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오해하는 관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통해 밝혀보려는 것이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의 전기 사상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기독교 언어의 사용이 비록 난해하고 다기한 특징을 갖는 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우 혼란한 특징의 틈새로 들어오는 애매하고 모호하며 무의미하기까지

한 ‘형이상학적’ 표현들이 도입되므로, 이런 아무 쓸모없는 표현들은 진리나 체계에 유해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사상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권하고 있다. 물론 그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이런 시각을 통해 볼 때, 여기에서 분석할 담화의 사례는 성경의 저자와 상황 속의 대상,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이의 구분을 놓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담화 중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비트겐슈타인의 방법론이 성경언어의 분석에 기여하는 초기의 시도이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철학 전반을 개관하는 것과 종교적 담화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서술을 포함하는 서론적 모습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비트겐슈타인의 종교, 윤리, 미학에 대한 초기철학의 견해를 거칠게 다룬 후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시험적으로 모델화하는 선에서 본고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철학을 살펴 보기로 하자.

II.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1. 개관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철학계의 거성이다. 그는 방법론상 철학의 흐름을 극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적 전환으로 인해 20세기의 “언어철학”이 태동했다. 언어철학은 2단계로 전개되는데, 소위 캠브리지 학파라고 불리는 인공언어학과 옥스퍼드학파라고 명명되는 일상 언어학파가 그것이다. 놀랍게도 이 두 학파는 비트겐슈타인의 2대 저작이 그것들을 각각 만들어 내었는데, 전자는 그의 전기 작품인 『논리철학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비트겐슈타인a, 1961))로, 후자는 그의 후기저작인 『철학탐구』(*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비트겐슈타인, 1958))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엔나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언어의 논리와 과학성을 강조한 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를 자신들의 모델로 표방하면서 의미 있는 학술적 진술이란 허구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몰아내고 엄밀한 논리를 통해 실증성을 확보할 때 진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의 구조를 검증(verification)과 반증(falsification)의 구조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수리와 논리 및 경험의 체계화를 최고의 학문적 가치로 내세웠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문상 최고의 이상을 엄밀성과 명료성에 의한 실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논리실증주의>라고 부른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 최고의 이상적 언어체계는 기호논리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인공언어학파로 분류한다. 이 영향은 단지 비엔나에 머물지 않고 영국과 미국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오늘날 까지도 그 자취는 남아 있다.

최고의 언어가 논리적인 구문법칙을 가진 것으로 보았던 인공언어학파와는 달리 일상적 언어가 가진 문법체계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옥스퍼드 대학의 라일(G. Ryle)을 위시한 일군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일상언어학파였다. 이들은 언어의 이상적

인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적 견해를 취했는데, 일상 언어의 다양한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언어이해를 보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논리실증주의가 과학적이고 반형이상학적인 입장이었다면, 일상언어학파는 반과학적이면서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이란 기술적(technical)이지 않는 언어들에 의해 기술되는 분야라고 믿었던 반면,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20세기 중후반의 영미철학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¹⁶³⁾ 더 나아가 그의 영향은 단순히 언어철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뻗어나갔다. 그의 저술 속에는 많은 주제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되고, 그만의 방법을 통해 독특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그의 견해도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 담론 역시 언어활동과 결부된 무엇이다. 그는 언어를 통해 종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 전후기 모두를 통틀어 이점에서 그의 논지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듯하다. 여건상 여기서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모습만 소묘해 보기로 한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그의 입장을 개관해 보자.

2. 전기철학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의 대표적 저작인 『논리철학논고』는 1922년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이 저술은 비트겐슈타인이 제1차 대전 오스트리아의 포병으로 전투에 참가하고 포로로 수용소에 수감되면서까지 집필한 육필 원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80여 쪽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경구적인 짧은 문장의 배열로 인해 읽는 시간은 기껏 한 나절이면 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함축적이어서 어지간한 철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다음과 같은 주제로 되어 있다.¹⁶⁴⁾

1. 세계는 경우가 되는 모든 것이다.
2. 사실, 즉 경우가 되는 것은 사태의 존재이다.
3. 사실의 논리적 그림은 사고이다.
4. 사고는 의미(sense)를 가진 명제이다.
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이다.
6. 진리함수의 일반형식은 이 $[\bar{p}, \bar{\xi}, N(\bar{\xi})]$ 다.
7.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것 모두를 연결해 보면 세계- 경우/사실-논리적 그림-사고-의미 명제-진리함수-침묵이다. 결국 요약하면, ‘세계 - 논리 - 명제/언어’가 된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언어로 그린 그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

163) 필자가 1991년 초 영국 Oxford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90여명의 철학과 교수 중 2/3 정도가 비트겐슈타인 전공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164) 『논고』는 아라비아 수자로 표시되어 있다. 1~7까지 한 자리로 표시된 명제는 독립된 명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자리 밑의 수는 그 자리 위의 수로 표현된 명제를 부연 설명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예컨대, 1 아래에 1.1이 있고 1.1 다음은 1.11, 1.11 아래에는 1.111,로 되어 있다.

은 침묵하기를 그는 원하며, 이것을 그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¹⁶⁵⁾ 또한 그는 명제를 세계를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하는 독특한 이론을 새우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그림이론(picture theory) 이라고 부른다.

3. 핵심과제

지금까지 보았듯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주제는 결국 언어의 의미에 관한 언어의 본성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한 일은 ‘언어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언어를 잘 써서 틀리지 않게 뜻을 통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 혹은 바람직한 언어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철학자들이 했던 것과 꼭 같은 또 하나의 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어란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물음을 묻고, 그 정체성을 나름대로 파악한 뒤, 그 언어의 쓰임새를 규명했다고 하는 점에 있다. 특히 그의 전기철학에서 보이는, 다른 철학자와 구별되는 점은, 언어를 사태를 그리는 명제라고 정의한 뒤, 마지막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다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즉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지만 서양에서는 비트겐슈타인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를 여기에서 본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어떤 경지를 넘어서는 사태를 묘사할 때 쓰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일상적 삶의 영역을 구분할 때 쓴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 그는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비트겐슈타인a, 1961: 7)고 한 점은 특이하다. 아마도 그는 하고 많은 사람들 - 특히 형이상학자들과 신학자들 -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인식적 오류를 범하는 용례들을 지적했던 것 같다. 이것을 그의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히 말해져야 한다.’라는 말과 대조시켜 보면, 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언어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의 지적은 단지 이 단어를 저 단어와 혼동해서 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언어에 대한 무지에 그가 빠져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의 전기 언어관을 들여다보자.

III. 그림인 명제들

1. 『논리철학논고』의 주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란 그려진다.’는 아이디어를 파리의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심리한 잡지 기사에서 얻었다.(Malcolm, 1958: 7-8)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재판관이 그 사건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모형 차와 소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터득한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실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건의 사태를 실재화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뿐더러 우리의 일상에서는 많은 경우 이런 묘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세계는 언어로 재현되며, 언어가 사실의 전체라면

165)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점에서 그의 책 『논고』를 논리학이 아니라 윤리학 책으로 명명했었다.

그 부분들은 부분적인 언어의 분야로 재현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재현형식은 매우 다양하고도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한 단어는 한 사물을 재현하고, 요소명제는 요소사실 - 원자 사실 - 을 재현하며, 복합명제는 복합사실을 재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재현은 곧 그리는 것이다. 166)

2. 그림의 메커니즘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에 관한 설명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그림이다.’라는 탁월한 생각에 있다. 그의 생각은 ‘하나의 명제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림이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명제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논고』에서 ‘그림’은 모든 말할 수 있는 사태 전체가 각각 그림이라는 뜻에서 그림이다. 비유적이기보다는 한 사태 그 자체가 곧 그림이고 동시에 모든 사태가 그림이라는 뜻이므로, ‘그림’은 매우 확대된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한 명제는 실제의 그림이다. 명제는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실제의 모델이다.”(비트겐슈타인a, 4.01) 인형이나 장난감 차들은 사고가 일어났을 법한 다른 방식들로 배열되도록 조작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실제 사고와는 다른 명제들을 구성하도록 그 인형과 장난감들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일반적 개념은 우리가 명제를 합칠 때 하나의 실제의 모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에서 하나의 사태는 실험적으로 합쳐진다는 것이다.”(비트겐슈타인a, 4.031)

흔히 인쇄된 하나의 명제가 그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고』에서 그것은 실제로 일상적 의미로 그것이 재현하는 것의 그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증거를 다음과 같은 데서 들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마주친 적이 없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되더라도 그것이 이미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된 명제 혹은 문장을 만날 때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더라도 그 명제를 이해하게 된다. 만일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라면, 가능한 설명이란 고작 한 명제는 의미를 보여준다. 일 것이다. 즉 명제는 그것이 참이라면, 사물이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림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오래된 낱말로 구성된 명제는 새로운 한 사태를 그려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소통시킬 수 있다.”(비트겐슈타인a, 4.022)

어떤 그림이건 『논고』에서는 한 그림의 요소들과 그림이 재현하는 사태 중의 사물들 사이에 일 대 일 대응이 있다. 예컨대 한 그림에서 그림의 한 요소가 사람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가 말(馬)을 지시한다면, 그 그림에서 요소들의 관계는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그림의 요소들은 어떤 규정된 방식으로 상호간 관계를 갖는 사실의 그림 속에 존재한다. 한 그림의 사실은 그림 요소가 지시하는 사물들이 그림 요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그림에서 요소들의 관계는 사실 속의 그 요소들의 관계와 동일한 사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즉, 그림은 어떻게 해서 사실의 그림이 되는 것인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하나의 그림은 그것이 그리는 것과 공통된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비트겐슈타인a, 2016) 만약 이런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즉 그림에서 그 그림과 그것이 그리는 사태와 유사점을 전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어떤 사태의 그림이

166) 비트겐슈타인은 다양한 그림의 예를 들고 있다. ①풍경화 ②인물화 ③덧셈, 뺄셈 ④수식, 공식 ⑤화학기호 ⑥음악부호 ⑦ CD Rom ⑧수신호 ⑨전공언어 등.

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 공통점은 바로 그림의 재현양식이다. 물론 그림은 매우 다양하다. 그림의 종류와 기법 그리고 다른 방식의 투사법들이 그림에는 동원된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혁명의 아침을 회화로 그릴 수도 있고, 음악으로 만들 수도 있다. 회화 안에서도 유화를 통해 구체화로 그려낼 수도 있고, 추상화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조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그림은 각각 어떤 형식을 띠는 적어도 실재를 재현하기 위해 실재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논리적 형식 즉 실재의 형식이다.”(비트겐슈타인a, 2.18) 이 논리적 형식은 세계 내의 사물들이 그림의 요소들과 연관될 가능성이라고 정의된다. 명제들은 그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묘사하는 실재와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다.¹⁶⁷⁾

3.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¹⁶⁸⁾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다. 그런데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바탕으로 비로소 존재한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는 논리, 원근법, 공식, 규약, 명명, 기보법, 새김술, 동의 등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를 정의하거나 기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당성 또한 따질 수 없다. 말하자면 맹목적이다.

예컨대 하나의 그림은 실재를 묘사할 수 있으나, 그 자체의 재현 형식은 묘사할 수 없다. 그것은 그것의 바깥으로부터 그 주체를 재현하나, 그 자체의 재현형식을 묘사하기 위해 그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른 형식을 가진 그림은 주어진 그림의 재현 형식을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보자.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그림은 매우 다양하다. 회화가 그림인 것은 물론이고 소리를 저장한 요즘의 DVD나 mp3 도 그림이다. 회화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노래 mp3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재현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소리의 그림을 색깔로 된 그림의 재현 형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그림이 다른 그림의 형식을 재현하려면 양자 사이에는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 형식은 어떤 그림에 의해서도 무시될 수도, 그러나 동시에 결단코 묘사되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다.

이런 과업은 명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명제를 통해 언술을 만들고, 명제로써 뭔가 사물의 사태를 말한다. 세계 내의 사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기술하려고 시도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제들이 어떻게 실재를 묘사하는지, 그것이 왜 참인지 거짓인지, 하는 자체를 묘사할 수는 없다. 모든 명제에 공통된 형식과 그것들을 실재의 그림이도록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할 수는 없다. 즉 언어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어떤 문장으로도 모든 명제의 그림형식을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명제에 의해 말해지며, 따라서 모든 명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비트겐슈타인b, 25)

이런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 명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갑은 을보다 키가 크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갑’과 ‘을’이란 무엇인지, ‘키가 크다.’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의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즉 ‘갑은

167) 여기에서 실재와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객관성, 규약성, 일관성, 법칙성의 의미를 갖는다.

168) 유의미한(meaningful), 무의미한(meaningless), 의미가 통하는(sensical), 의미가 통하지 않는(senseless), 허튼(nonsensical) 등의 의미론적 구분이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전기사상에서는 종교적 언술이란 가치론적인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므로, 여기서는 이런 세부적 언급을 생략한다.

을보다 키가 크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기란 곤란하다. 물론, 문장의 요소를 이해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서 이 사태의 의미를 추측케 할 수는 있으나, ‘...보다 키가 크다.’란 의미를 ‘갑’과 ‘을’을 제시하듯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⁶⁹⁾ 실제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저 문장이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나, 이해되는 것이라고 전부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관계 개념과 같은 것은 논리학적 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세계의 바깥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사태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많다.

IV. 종교적 예술의 특징

1. 『논고』의 견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종교적 믿음을 비롯한 가치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시 가치에 대한 문제로 가 보자. 우리가 가치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통상 그 예로서 윤리적 가치, 미적 가치, 그리고 종교적 가치를 든다.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 같다. 다음을 살펴보자.

6.4 모든 명제는 같은 값을 갖는다.

6.41 세계의 의미는 반드시 세계 밖에 놓여있다.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은 있는 대로 있고, 일어나는 대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난다. 그 안에서 가치란 없다 --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값을 칠 수 없는 것이다.

값을 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되는 바깥에 놓여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일어나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은 우연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비우연적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 안에 놓여있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차 우연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 밖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6.42 이리므로 윤리적 명제들 또한 있을 수 없다.

명제들은 더 이상 높은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다.

6.43 만일 선한 의지나 악한 의지가 세상을 바꾼다면, 그것은 또한 세상의 한계를 바꿀 수 있지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계는 그것을 통해 전혀 판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전체로서 차고

169) ‘a보다 b가 늙었다.’거나 ‘a보다 b가 크다.’와 같은 문장에서 ‘...보다 ...하다.’는 관계 개념이어서 그것을 독자적인 사태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a가 한 마리의 소일 경우, 소의 내포를 통해 얘기하듯이 관계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울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세상은 불행한 세상과는 전혀 판판이다.

6.44 신비로운 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사실*이다.

6.45 영원의 상하에서 세계에 대한 숙고는 제한된 전체로서 그것의 숙고이다.

제한된 전체로서 세계의 느낌은 신비로운 느낌이다.

6.51 회의론은 한 질문이 대답될 지점을 의심할 경우 논박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신 나간 것이다.

질문이 있는 곳에서만 의심이 존재할 것이겠기 때문이다. 대답이 있는 곳에서만 질문이 있고, 이것도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6.52 모든 가능한 과학적 질문이 대답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취급되지 않은 채 있다고 우리는 느낀다. 물론 그때 질문은 남아 있지 않고, 이것만이 그 답이다.

6.53 철학의 바른 방법은 이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 즉 자연과학의 명제들, 즉 철학과 무관한 어떤 것을 제외한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난 다음 항상, 나머지 누군가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할 때, 그에게 그가 자기의 명제들 가운데 있는 어떤 기호들에게도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고 논증하는 것.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것이므로--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엄정한 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6.54 내 명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명된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가 그 기호들을 통과하여, 밟고, 넘어갔을 때는, 결국 그 기호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뒤에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세계를 똑바로 본다.

2. 합리적 기준의 증발: 가치론의 공통점

가치론의 판단 영역, 예컨대 아름다움, 착함, 거룩함 등은 그 기준이나 근거가 사실에 놓여있지 않다. 흔히 우리가 ‘그것의 판단은 주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판단이 객관적 기준 즉, 세계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그 기준이 세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은연중 실토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예컨대 ‘이 꽃병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인 아름다움이 마치 꽃병처럼 사실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것은 전혀 유의미한 발언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적 언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을 돈 많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소위 종교가 세속화된다고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상식적 오류에 속한다. 받는 것은 복의 경우와 돈

의 경우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데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문제는 돈의 경우는 이 세상 안의 것을 말하는 진술로 객관적 진위 여부가 판별 가능한 것인데 반해, 복의 경우는 가치론적인 의미의 단어이므로 그 적용범위가 다르고, 또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또 그 사태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인식의 토대

종교적 언술은 또 세계를 인식하는 장치 내지 토대를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은 참으로 아수라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실의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시대에 따라 세상이 조금씩 다르긴 했으나 세상 한 쪽이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없는 쪽이 있어왔다. 전쟁이 없는 쪽 사람만이 세상을 ‘천국’으로 보고, 전쟁이 있는 편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옥’으로 보는 일만 있어온 것이 아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말했으며, 도리어 가난한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부유한 나라보다 높다는 일반적 통계는 부닥쳐 있는 세상의 사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지옥도 천국이 되는가 하면, ‘걱정과 불안에 싸인 사람’은 평온한 환경도 ‘지옥’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행복한 세상과 불행한 세상은 판판인 것이며 그것은 세계의 한계가 바뀐 것이지, 세계의 사태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세상의 한계는 자기가 가진 신앙이 어떤 것인가 때문에 행, 불행이 바뀌는 것이지, 사실에 의한 판정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종교적 가치의 위치는 세상 안의 사태가 아니라 세상의 너머에 있는 신념에 좌우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가치를 언어로 기술하거나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4. 초월적임: 신비적임

신앙적 언술은 이유와 변명이 통하는 방법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 자체의 문제이다. 예컨대 물고기 한 마리가 여기에 헤엄치고 있다고 치자. 그것이 어떻게 헤엄치며 왜 여기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은 재미있고도 대답 가능한 담론이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여기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는 사태 자체는 매우 엄숙하고도 신비스런 것이다. 왜냐하면 앞의 질의응답이란 재미있게 이 물고기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우연적인’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설명으로 여기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의 사실을 필연적이고도 충분한 형식으로 묘사할 수는 없다.¹⁷⁰⁾

둘러보면 우리 주위는 그것 자체로서 총체적으로 필연적임을 설명하지 못할 사실들로 싸여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신비에 싸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무성한 말과 넘쳐나는 정보와 정밀한 지식 체계의 그물망에 들어오는 사실은 도 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희소하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대를 확대해서 숙고해 볼 때 우리의 놀라움은 극대화한다.

170) 여기서 필요충분조건의 예를 들면, $2+3=5$ 라는 사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성립되는 계기이다. 그러나 경험적 사실, 예컨대 ‘이 소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았다.’는 사건은 매우 우연적 사태인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작은 몸짓으로 아주 우주간의 작은 사태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한계란 시공간적으로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다. 단순히 존재론적으로나 실존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인식론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때, 각각의 지식의 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초조나 좌절은 더욱 심대해진다. 우리가 갖는 것은 세계의 사실에 대해 혹은 세계의 바깥에 대해 외경함과 신비로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무모한 언표화는 인식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비록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불명료한 것과 아는 것의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신앙적 맥락은 이것을 가르쳐주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료화를 모토로 하는 철학의 역할이란 당연히 이 점을 일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담화의 용례를 성경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자.

V. 성경의 담론들

1. 니고데모의 경우: ‘말할 수 없는 것’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4)

여기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마치 선문답하는 두 승려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전혀 양자의 대화가 소통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신앙적이거나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비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지적을 자연주의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자연주의적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양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언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들은 지금부터 이야기의 방식을 자연주의적으로 진행시키는 일에 대해 ‘침묵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해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문제 삼아 시비 걸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 비합리적 모습이 되느니라].’(요한복음 3:7-8)

사람들은 신앙을 핑계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신앙인들에게 시비를 걸 때, 이런 태도를 보인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용함으로써 군량미를 확보하라고 군중 장교에게 요구하는 사령관도 있고, 배가 없으니까 물위를 걸어가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무신론자도 있다. 때때로 기적을 강제하는 목회자도 더러 있다. 이것은 전부가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주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영역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¹⁷¹⁾

2. ‘부활에 대한 논변’: 추상화

마태복음 22장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온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위해 모세의 율법[만형이 결혼했으나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될 경우 모든 형제에게 적용된다]을 들고 나와, 내세에서 부활할 경우 생길 혼란으로 논변을 전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히 살아계신 현재성과 지상과 천국의 불연속을 들어 그들을 논박했다.(마태복음 22: 22-33.)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사실은 전부 오직 업무에 속한 것이지 그 수행에 속한 것은 아니다.”(비트겐슈타인, 1961a: 6.4321) 위에서 본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궁극적 부활의 의미는 안중에 없고, 예수님의 주장이 맘에 들지 않아 오직 그것이 왜 불필요한지를 비판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축자적으로] 인용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부활도 몰랐고, 율법의 해석도 초보적이었고, 예수님의 주장만을 배척하려는 적개심의 노예들이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안팎에서 만난다. 그들의 출발점은 오로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필자의 경험상으로 많은 교수들이 상식 밖으로 기독교를 감정적이고 피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가 아는 교인 한 두 명의 비리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워낙 경박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대화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며 그들의 관심은 현세의 자기 사태에 집중되어 있었다.

3.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 크리커추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온다.(누가복음 10: 38-42) 언니 마르다는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못 마땅해 하며, 원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염려와 근심을 그만 두고 집중하라고 꾸짖는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은 여기서 성, 속을 이원화시켜 예수님과 말씀과 관련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취한 것으로 칭송하고, 대접 일반을 부지런히 하는 마르다를 ‘영양가 없는 부수작업’이나 하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맥락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성숙의 구별은 분명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천 날을 교회에서의 한 날보다 못한 것으로, 그래서 평신도로서 50년 세상에 봉사한 것보다 교회 활동한 5년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폐단이 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선교사로 파송된 전직 교수 한 사람은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행정사무를 보는데, 이전보다 더 행복을 느낀다. 왜냐하면 선교사 신분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확히 장소와 대상이 다르긴 해도 일의 성격상 무엇이 이전과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폐쇄적 게토(ghetto) 안에 사는 것을 복음적이라고 믿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착종된 인식은 갖고 있지 않은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인가를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난점이 여기서도 그 역할에서 드러날 수 있다.¹⁷²⁾

171) 영역적 오류(Category-mistake)는 라일 G. Ryle이 사용한 개념이다.

VI. 나오는 말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철학에서 종교적 특성은 이렇듯 그 말의 사용과 그 의미의 이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종교적 담론이란 그것이 철저히 일상적 의미로 사용될 때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는 단지 한 두 가지의 보완이나 제시를 통해 혼탁된 의미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특히 종교적 담론에서는 그 언어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 종교적 내용이 전혀 현실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마구 오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건강부회함으로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 종교 그 자체의 훼손과 타락을 가져오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의 권고처럼 일단 침묵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갖는 한계는 있다. 즉,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이 말하는 진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자 오로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이를테면 이런 구분은 더 세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말할 수 없으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 말할 수 없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으나 보여줄 수 없는 것, 말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 등등.... 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이런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후기 사상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성경전서』 (한글개역)

Wittgenstein, Ludwig,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1961a), D. F. Pears와 B. F. McGuinness역,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_____,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1958), G. E. M. Anscombe과 R. Rhees 편, G. E. M. Anscombe역, Oxford: Blackwell.

_____, *Notebooks 1914~16*(1961b), ed. and trans. G. H. von Wright, Oxford: Basil Blackwell.

신상형(2011. 8),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사상: 윤리학과 미학을 중심으로」, 『哲學研究』 제119집.

Norman Malcolm, *Ludwig Wittgenstein: A Memoir*(195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iographical Sketch,' by Georg H. von Wright

Frascolla, Pasquale, *Understanding Wittgenstein's Tractatus*(2007), New York: Routledge.

Glock, H-J., *A Wittgenstein Dictionary*(1996),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72) 이 밖에도 최후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담화, 빌라도와 예수 및 유대인들 사이에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동일한 문장의 공유와 그 차별적 해석, 등등의 담화들이 종교적 담화의 특징을 세밀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여러 다른 유형의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